

‘저비용 고효율’이 성공 열쇠 들러리 안되려면 선수 키우자



(4) 이제 세계수영선수권이다

광주유니버시아드는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6년간의 정성을 12일간의 환희로 물들였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광주U대회의 성과를 안고 이제 4년 뒤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2만여명 24일간 몰살 가른다=세계수영선수권은 국제수영연맹(FINA)이 2년마다 개최하는 올림픽과 더불어 최고 권위의 국제대회다. 수영을 통해 세계인들의 우호를 증진하고 경기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주수영선수권은 2019년 7~8월 24일 동안 광주에서 펼쳐진다. 대회는 수영선수 8000여명이 경연하는 수영선수권대회(16일간)와 수영동호인 1만2000여명이 참가하는 마스터즈선수권대회(12일간)로 나뉘어 진행된다.

경기는 경영(Swimming), 다이빙(Diving), 하이 다이빙(High Diving), 원영경기(Open Water), 수구(Water Polo),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Synchronised Swimming) 등 6개 종목에서 우정어린 경쟁을 펼친다.

◇올해 조직위 출범=광주시는 대회 운영을 책임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연내에 구성, 출범할 계획이다. 앞서 오는 10월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2019년 7~8월 24일간

세계 2만여명 광주서 '몰살'

대회 조직위 연내 출범

임시플 최대한 활용 계획

광주시 다이빙팀 창단 나서

대회 비전과 전략, 효율적인 준비·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일정 수립, 세부사업 계획 등이 담긴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장·훈련장을 몇 개 정도 새로 지을지'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기 위해 대회 시설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발주해 놓은 상태다. 내년 6월께 용역 결과가 나와야 신속 경기장 등 시설 계획을 알 수 있다.

다만, 광주시는 수영선수권도 광주U대회와 마찬가지로 '저비용 고효율'을 콘셉트로 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장 신축보다는 최대한 '임시플'을 사용한다는 전략이다.

수영 전문가들은 "세계수영대회의 대세는 '임시플'이다"고 전했다. 월드컵경기장에 임시플을 설치하면 FINA에서 요구하는 1만5000석을 충족, 메인경기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3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남부대수영장을 확장하는 것보다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들러리 안되려면 선수 키워야=광주U대회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광주·전남 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이다.

육상 100m 한국신기록 김국영(광주시청), 양궁 세계신기록 기보배(광주시청),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스텝 내딛은 유도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 고향에 첫 금메달을 선물한 펜싱 송중훈(전남공고 출신), 2관왕 달성한 호너 골퍼 이정은(순천출신), '도마의 신' 양학선(광주 출신), 고향팬들에게 금메달 선사한 배드민턴 이홍대(화순 출신), '우생순 신화'에 몸 던진 핸드볼 김은아(무안 출신), 모교서 금메달만 태권도 배종범(조선대) 등등. 이들의 눈부신 활약이 광주·전남 지역민들을 경기장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기초 종목인 수영은 참담했다. 경영 결선 진출은 전무했고, 수구는 전패했다. 박태환을 이을 차세대 스타를 발굴·육성하지 않으면 추월광주와 한국은 들러리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다이빙에서만 가능성을 발견했다. 주 최측 광주는 4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다이빙팀을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내 광주시체육회 소속으로 다이빙팀을 창단하겠다는 것이다.

다이어빙에서만 가능성을 발견했다. 주 최측 광주는 4년내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다이빙팀을 육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내 광주시체육회 소속으로 다이빙팀을 창단하겠다는 것이다.

유재신 광주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우리 선수가 출전해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며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다이빙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적극적으로 일하다 빚어진 잘못된 면책”

감사원 10월까지 적극행정 면책제도 지자체 순회교육

감사원은 20일 공직사회에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유도하고 새롭게 도입된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빚어진 사소한 잘못의 경우 책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순회 교육 기간은 21일부터 10월까지로, 대상은 6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강사는 감사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31명이 맡기로 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개요와 면책 사례다.

감사원이 제시한 주요 면책 사례를 보면 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제재 상태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를 준수했다며 징계 수준을 주의를 감경했다.

감사원은 또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민간 기업의 채산리자원 조성 비용 18억여원에 대한 분

할 납부를 허용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면책 처분을 내렸다.

반면 감사원은 소극행정 유형으로는 ▲적당편의 ▲타당행정 ▲업무해태 ▲관(官) 중심 행정을 꼽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모 부처에서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을 관리하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도 면접시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고시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다른 기관에서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신고서를 접수한 뒤 열흘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도 각종 사유를 들어 60일 동안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들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에게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등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내휴가를 독려하고 있다. 행자부는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기업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캠페인을 정부서울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10개 모든 정부청사에서 실시한다. /연합뉴스

“올 여름휴가는 국내에서 즐기자”

공무원·자치단체·공공기관 캠페인 확산...재계·노동계도 동참

올 휴가는 대한민국으로!

내수를 살리자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 내수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노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함께 나선다. 특히 여름 휴가철 국내여행을 통해 메르스로 인한 부진을 회복하자는 캠페인이 확산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메르스 때문에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단체·지방공기업과 함께 이달 24일까지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를 시작

으로 전국 10개 모든 정부청사에서 중앙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같은 홍보물을 나눠주며 국내휴가를 독려한다.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관내에서 국내여행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캠페인에 나선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모든 공무원이 반드시 휴가를 다녀와 재충전을 하고, 국내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도 운동에 동참한다.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임원들은 여름 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기로 했다.

20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이날 이인원 부회장은 각 계열사에 전이통신문을 보내 "내수 살리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 직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휴가를

쓰고, 해외 휴가를 지양하는 대신 국내 휴가를 실천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은 지난 19일부 터 그룹과 계열사가 협력해 '올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즐기자!' 캠페인에 들어갔다.

한화그룹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은누리상품권 50억원 상당을 구입해 전 직원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총연맹본부(의장 이준희)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 상권살리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울산분부는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지역 상권 위축이 장기화함에 따라 산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울산지역 상권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1만5000명...관광공사, 역대최대 중국인 인센티브 관광객 유치

내년 5월 항공편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인센티브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 한국관광공사는 메르스 여파 영향에도 중국 남경중매과기발전유한공사(南京中脈科技發展有限公司) 인센티브 여행단체 1만5000명 유치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센티브 관광은 회사나 단체가 업무실적이 뛰어나거나 우수한 사원을 선발, 단체로 외국에 여행을 보내주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내년 5월 3차례에 걸쳐 항공편으로 우리나라를 찾아 4박 5일간 머문다. 2014년 크루즈편으로 방한한 중화권 압웨이 인센티브 단체관광(1만7556명·경제과급효과 577억원), 2011년 항공편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오젠(寶健) 인센티브 단체관광(1만860명·경제과급효과 516억원)을 크게 웃도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광공사는 기대했다. 관광공사는 8월부터 3~4차례에 걸쳐

이들 단체의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답사를 지원하고, 비자신청과 대규모 인원의 편리한 입국 수속을 위해 관계 기관과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성공적인 인센티브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환영행사·관광활동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중국 남경중매과기발전유한공사는 1993년 중국 난징(南京)에서 설립된 건강·보건 제품 생산 판매업체이다. /연합뉴스




제 10회 하나투어 웨딩&허니문 박람회

2015. 8. 8(토) ~ 9(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1만원 권 증정
독일 기펠 토스트기 제공
사전 방문 상담 예약 시, 다양한 특전 제공

하나허니문 추천 상품

클래식 북부 해안섬 일주 오후 6일/7일

총상품가 2,471,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 경비 있음

출발일 : 6월 ~ 12월 토/일/월

특 전 : 오션프론트 룸 무료 업그레이드
커피당 롯데 상품권 5만원 제공
일로하 유심칩 제공(국제전화, 데이터 무제한 /최대 5일 사용)
카카오 필름 영상 제작권 제공

자유여행 오아후 + 마우이 6일/7일 마케나 + 애스톤

총상품가 1,772,000원~

출발일 : 6월 ~ 12월 토/일/월

특 전 : 인당 60불 상당 와이키키 다나카 레스토랑 식사권
커피당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원 제공
일로하 유심칩 제공(국제전화, 데이터 무제한 /최대 5일 사용)
카카오 필름 영상 제작권 제공

하나투어

HANA TOUR

www.hanatur.com

■여행상품 가격(국내):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여행자보험료, 관광보험료, 관공세,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요금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된다. ■여행상품 가격(해외):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항공권, 호텔 등 여가 비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는 상황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선박/항공: 현지에서 고가의 선박/항공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박/항공 미참석은 안전 불이행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 매매/중개/임대 계약은 알뜰여행이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사: 관광사 등록번호 제29004-1993-9 (종로구)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텔 2성급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상선/기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문의전화: Tel: 1577-1233ARS (내선번호 02) ■여행 보험료: 22억 (1인당)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기 포함인 상품/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재산관리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비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에 따라 선택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권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결제 및 선택권 미 선택 시 대체상품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여행 단체별 국가 지정 여행사 ■여행 유무 ■여행 일자 ■항공 권고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